***꼬빌리시 에큐메니칼 예배 설교문 (2013.5.5)***

**환대의 다리 (A Bridge of Hospitality)**

<사도행전 11장 19-26절>

19 그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2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5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 예수 부활의 증인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교회가 생겨납니다. 이 교회는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지중해 연안의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릅니다. 거기서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그곳에는 유대인 회당과는 또 다른, 유대인들만으로 구성된 예수 제자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안디옥으로 건너간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신 결과였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의 유대인 제자 공동체는 헬라인과 유대인이 공존하는 다민족교회로 변모합니다. 예루살렘교회의 사도들이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의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 구브로 출신 헬라파 유대인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안디옥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2] 이렇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교회 안에 공존하다보니, 복잡하고 불편한 상황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우리 꼬빌리시교회는 안디옥교회와 같은 다민족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교회 성도들은 안디옥에 형성된 그 최초의 다민족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지 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언어가 달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통역에 의지해 조금 불편하게 예배를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문화가 달라 각자 더 선호하는 예배 스타일이 있었을 것이고, 더 익숙한 생활방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갈등이 생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일부 유대인들은 왜 저 이방인들을 교회에 불러들여 이 귀찮은 상황을 초래했냐고 불평했을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일부 헬라인들은 우리가 왜 저 유대인들과 꼭 여기서 같이 있어야 하냐고, 나가서 우리끼리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자고 선동했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성령에 이끌려 이제껏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위에 서 있던 안디옥교회에게 바나바가 주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특정 전통이나 민족성을 따라 서로 나뉘지 말고,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붙들라는 것입니다.

[3] 꼬빌리시의 이 예배당에서 체코와 한국 크리스찬들이 함께 예배드린지 어언 13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일본을 비롯한 여러 민족 크리스찬들도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13년 전 이 다민족교회의 시작에 주춧돌을 놓았던 고 슈토렉 목사님과 이종실 목사님은 세상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신앙고백을 공유했습니다. 이 두 목회자는 체코 개신교회는 그 폐쇄성을 극복하고 열린교회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체코와 한국 크리스찬들이 한 지붕 아래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유익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는 6월 23일은 돌아가신 슈토렉 목사님의 10주기 기념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임종을 얼마 앞두고 그는 한인공동체 성도들을 찾아와 간곡히 부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교회의 보배와 같은 존재들이니 어떤 일이 있어도 이곳을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의 사후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곳의 한인 성도들은 그 유언을 기억하며 이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지금의 이 꼬빌리시교회는 이러한 환대와 인내의 토양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4] 오늘날 교통과 통신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본거지를 떠나 이주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체코에도 전체 인구의 약 4.3%에 달하는 이주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 이주민들 가운데 크리스찬의 비율이 무려 49%에 이른다 합니다. 이는 아주 단순히 말하면, 전세계 크리스찬의 절반은 현지인으로, 나머지 절반은 이주민으로 존재한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이 둘이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협력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레 따라오게 됩니다. 작년 8월에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있었던 세계선교학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주로 논의된 이슈가 이 전세계적 이주의 상황이 기독교 선교에 주는 의미에 대해서였습니다. 그 기간 중 자주 언급된 단어가 있었는데, 바로 ‘환대’였습니다. 주로 서구학자들의 입장에서, 이 서구세계에 들어와 살고 있는 제 3세계 이주민들을 손님으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들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은 이 꼬빌리시교회 안에서 이미 13년 전에 시작된 고민이었고, 따라서 이 ‘환대’의 관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5] 한국어 사전은 ‘환대’를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영성학자 헨리 나우웬은 기독교적 의미의 환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환대란 이방인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적이 아닌 친구가 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다. 환대는 내 편에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하기보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그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에 놓인 경계선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을 자유를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진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롬15:7). 예수님은 “너희가 지극히 작은 나그네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 25:38,40). 서신서에서도,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에 소홀하지 말라” (히13:2), “서로에게 환대를 베푸는 일을 원망 없이 하라” (벧전4:9),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환대의 복음이며,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6]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교회는 이 환대의 복음이 약동하는 환대의 공동체입니까? 아직 부족한 모습도 많지만, 우리가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체코공동체 성도님들이 저희 이주민 크리스찬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려 노력하시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잘 해주고 싶지만 언어의 장벽 때문에 서로의 삶에 더 깊이 관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통은 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닐 것입니다.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소리 없는 말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교회 안에는 이렇게 마음의 언어로, 바나바처럼 ‘환대의 다리’ 역할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그분들처럼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보이면, 그것을 슬그머니 치워놓으십니다. 그분들과의 만남 속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꼭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7] 체코사회는 이곳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그리 호의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적잖은 이주민들이 적응에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용케 정착에 성공한 이들은 체코인들이 그들을 대한 것과 똑같이 그 현지인들을 대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오늘날 체코사회에는 현지인과 이주민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번은 우리교회 어린이 연합예배 시간에 제 아내가 아이들에게 질문했답니다. “삭개오처럼 학교에서 주위 아이들이 나를 무시하고 왕따시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는 사람 조용히 손 들어볼래?” 그랬더니, 체코 아이들은 모두 가만히 있는데, 한국 아이들은 전원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이주민들이 이 사회로부터 환대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은 이주민 사회의 게토화를 낳고, 민족간의 적대감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할까요? 현지인과 이주민 사이의 적대감이 점차 환대로 바뀔 수 있게 하는 ‘환대의 다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 그 둘이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며 함께 환대의 장을 만들어갈 때, 그것은 교회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 복음에로 초청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8] 오늘날 많은 체코사람들이 교회를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에게 교회가 하나의 기관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기관화된다는 것은 기존 멤버들에게 익숙한 규범이나 질서가 고착화되어, 외부인들이 들어오기에 너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체코교회가 그 기관화된 모습을 탈피하는 한 가지 좋은 길은 그와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진 이주민 크리스찬들을 손님이자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환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자기 자신을 환대의 공동체로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나바는 회심자 사울을 안디옥교회에 데려와 동역자로 삼습니다. 이것은 분명 모험이었습니다. 당시 적잖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한때 박해자였던 사울에 대해 여전히 의혹과 걱정을 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사울 사이에서 기꺼이 ‘환대의 다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슈토렉 목사님을 시작으로 우리 꼬빌리시교회의 여러 목회자와 당회원들 역시 믿음으로 바로 이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13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의 의혹과 걱정은 점차 신뢰와 평안으로 바뀌고, 이제 꼬빌리시의 세 민족 공동체는 한쪽이 다른쪽을 일방적으로 돕는 관계가 아닌, 서로 도와가며 함께 성장해가는 관계로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9]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일년간 그 안디옥 다민족 공동체에서 함께 가르쳤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한때 유대인만으로 구성되었던 예수 제자 공동체에 헬라인들이 들어오고, 이어 그 다민족 공동체 안에서 환대의 복음이 실제적으로 교육되고 경험되면서, 기독교 신앙은 이제 유대 민족주의의 좁은 틀을 벗어나 온 인류를 포괄하는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형성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후 이 안디옥교회의 선교활동을 통해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세워진 다른 다민족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그 독특한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엡 2:14-15).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끊임없이 자기 안에 막힌 담을 허물면서, 환대와 화해의 정체성을 자기 안에 체화시켜가는 공동체입니다.

[10] 오늘날 적잖은 체코사람들이 기독교와 교회를 이 서구세계의 구시대적 유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독교 복음은 비서구권에서 여전히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으며, 거기서 독특한 기독교 문화들을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독교 복음은 결코 하나의 신학 안에 갇히지 않고, 기독교 문화 역시 하나의 문화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문화에 포로가 되어 있는 교회는 더 이상 그 문화를 새롭게 변혁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자신과 다른 기독교 전통들과 소통하면서 다시금 복음 안에서 해방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코, 한국, 일본, 그리고 여러 소수민족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꼬빌리시교회 안에서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체코공동체가 이 체코사회에서 더 온전한 환대와 변혁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주민 크리스찬들은 그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공동체가 각각의 이주민 사회에서 더 온전한 환대와 변혁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코 크리스찬들은 그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꼬빌리시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서로간에 벽을 좀더 허물고, 서로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며 서로를 향해 환대를 실천하는 이 자리에, 그리하여 서로의 얼굴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